

# 『靈樞·經脈編』 및 『東醫寶鑑』의 주요 肺病證과 四象體質病證의 비교·고찰

김오영·김일환·박혜선·김효수·임치혜·초재승

동신대학교 사상체질의학과

## Abstract

### A Study on Chief Lung-Disorder Diseases of Yeong-Chu Gyeong-maek Chapter (『靈樞 經脈篇』) and Dongui-Bogam (『東醫寶鑑』) on the Relationship of Sasang Constitutional Diseases

Kim Oh-young, Kim Il-Hwan, Park Hye-Sun, Kim Hyo-Soo, Yim Chi-Hye, Cho Jae-Seu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 1. Objectives

This study is purposed to classify deficiency syndrome(虛證) and Excess syndrome(實證) of chief lung-disorder diseases.

#### 2. Methods

It was researched on the comparative and literal study about the relation to Yeong-Chu Gyeong-maek Chapter (『靈樞 經脈篇』), Dongui-Bogam (『東醫寶鑑』) and Dongui-Susebowon (『東醫壽世保元』) in chief lung-disorder symptoms or diseases.

#### 3. Results and Conclusions

- (1) The chief lung-disorder diseases of Yeong-Chu Gyeong-maek Chapter (『靈樞 經脈篇』), Dongui-Bogam (『東醫寶鑑』) and Dongui-Susebowon (『東醫壽世保元』) are asthma(喘), coughing(咳), fullness in the chest(胸滿), sweating symptoms(汗出), cold-heat symptoms(寒熱), dysphoria(煩躁) and sneezing(嚏).
- (2) Asthma symptom(喘) was shown to Soeumin's 4 exterior deficiency diseases, Taeumin's 1 exterior deficiency disease and 1 interior excess disease, and Soyangin's 1 interior excess disease.
- (3) Coughing symptom(咳) was shown to Soeumin's 1 exterior deficiency disease and Taeumin's 1 interior excess disease.
- (4) Fullness in the chest(胸滿) was shown to Soyangin's 4 exterior excess diseases.
- (5) Sweating symptoms(汗出) was shown to Soeumin's 10 exterior deficiency diseases, Taeumin's 1 exterior deficiency disease, and Soyangin's 1 exterior deficiency disease.
- (6) Cold-heat symptoms(寒熱) was shown to Soyangin's 4 exterior excess diseases.
- (7) Dysphoria(煩躁) was shown to Soeumin's 1 exterior deficiency disease and 8 interior deficiency diseases, Taeumin's 1 interior excess disease, and Soyangin's 4 exterior excess and interior excess diseases.
- (8) Sneezing symptom(嚏) was shown to Taeumin's 1 exterior excess disease.

**Key Words :** Chief Lung-Disorder Diseases, Yeong-Chu Gyeong-maek Chapter (『靈樞 經脈篇』), Dongui-Bogam (『東醫寶鑑』), Deficiency Disease, Excess Disease, Asthma(喘), Coughing(咳), Fullness in the Chest(胸滿), Sweating Symptoms(汗出), Cold-Heat Symptoms(寒熱), Dysphoria(煩躁), Sneezing(嚏)

## I. 序 論

四象醫學에서는 기존 證治醫學의 病證藥理인 邪氣實·正氣虛에 따른 補瀉 개념이 아니라 각 체질의 고유한 正氣 중심으로 順氣, 調氣하는 차원에서 陰陽의 升降緩速을 조절하는 治療精神을 세우고 體質病證藥理를 정립하였다<sup>1)</sup>.

또한 病證을 虛實로 구분하기보다는 表裏寒熱을 위주로 구분하고 있다<sup>2)</sup>.

『東醫壽世保元』의 少陰人 太陽病厥陰證에 ‘正氣와 邪氣가 서로 세력이 약해진다<sup>3)</sup>’던가 少陽人 陰虛午熱證에 ‘表裏陰陽이 俱虛해진다<sup>4)</sup>’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病證에 대해서는 虛實에 관한 언급이 없다. 著者는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선행 논문은 없었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傷寒論』의 문구를 많이 인용하고 있으며, 『傷寒論』의 이론은 外感 寒邪를 主要 病因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五臟 중에서 특히 外感和 관련이 깊은 肺에 관한 연구를 선행하게 되었다.

『靈樞·經脈篇』과 『東醫寶鑑』의 主要 肺病證을 『東醫壽世保元』과 비교·고찰하여 각각의 病證을 虛實로 구분해 보았다. 이에 유의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어 보고하는 바이다.

## II. 研究 方法

1. 經絡의 病證이 수록된 『靈樞·經脈篇』<sup>5)</sup>에서 手太陰肺經의 病證을 정리했다.

2. 기존 證治醫學에서 辨證 및 臨床에 많이 활용하는 『東醫寶鑑』<sup>6)</sup>에서 肺와 관련된 病證을 정

리했다.

3. 『靈樞·經脈篇』과 『東醫寶鑑·肺門』을 종합하여 공통적으로 언급된 증상을 위주로 肺의 주요 증상을 선별했다.

4. 선별된 증상들을 『東醫壽世保元』원문과 비교·고찰하여 각각의 病證을 虛實로 구분하고 도표화했다.

## III. 本 論

### 1. 『靈樞·經脈篇』과 『東醫寶鑑·肺門』에 나타난 肺의 主要 病證

#### 1) 『靈樞·經脈篇』의 手太陰肺經 病證<sup>7)</sup>

‘是動則病, 肺脹滿膨膨<sup>8)</sup>而喘咳, 缺盆中痛, 甚則交兩手則脅<sup>9)</sup>, 此爲臂厥<sup>10)</sup>.’

‘是主肺所生病者, 咳上氣, 喘渴, 煩心, 胸滿, 膈臂內前廉痛厥, 掌中熱, 氣盛<sup>11)</sup>有餘, 則肩背痛, 風寒汗出, 中風, 小便數而欠, 氣虛則肩背痛寒, 少氣不足以息, 溺色變.’

#### 2) 『東醫寶鑑·肺門』의 主要 病證<sup>12)</sup>

- 肺虛則令人喘呼吸 少氣而咳 上氣見血 下聞病音
- 肺氣虛則鼻息不利 少氣
- 肺實則令人逆氣而背痛 慍慍然
- 肺氣實則喘渴 胸憑仰息
- 肺外證 面白 善嚏 悲愁不樂 欲哭
- 肺內證 膈有動氣 按之牢若痛 其病喘咳 面白 善嚏
- 肺熱者 色白而毛敗
- 汗出髮潤 喘不休者 此爲肺絕
- 邪在肺則病皮膚痛 寒熱 上氣 喘 汗出 咳 動 肩背
- 肺病者 喘咳逆氣 肩背痛 汗出 尻陰股膝 體膈

1) 全國 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改訂增補 四象醫學. 集文堂, 서울, 2004:57.

2) 예를 들어 少陰人의 경우 腎受熱表熱病, 胃受寒裏寒病으로 구분된다.

3) ‘厥陰陰毒 正邪相傾之病 不可不預用藥也 -.’ (8-6)

4) ‘若夫陰虛午熱 飲水背寒而嘔者 表裏陰陽 俱爲虛損 -.’ (10-28)

5) 黃帝內經 靈樞. 醫聖堂, 서울, 2002.

6) 東醫寶鑑國譯委員會 譯. 對譯 東醫寶鑑. 法仁文化社, 서울, 1999.

7) 黃帝內經 靈樞. 앞의 책. 296-299.

8) 脹甚

9) 흐릴 무(정신혼란)

10) 厥冷한 상태(經氣가 逆하므로 發)

11) 外部 邪氣가 盛함

12) 東醫寶鑑國譯委員會 譯. 앞의 책. 322-325.

跣足 皆痛虛則 少氣不能報息 耳聾 噎乾

3) 『靈樞·經脈篇』과 『東醫寶鑑·肺門』을 종합하여 선별한 主要 肺病證

喘, 咳, 胸滿, 汗出, 寒熱往來, 煩心, 嘔의 7가지 증상이다. 선별 기준은 위의 두 서적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위주로 했다. 단, 嘔의 증상은 『東醫寶鑑』에서만 언급되었지만 肺와 관련된 증상에서 쉽게 나타나고, 『東醫壽世保元』에 언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택했다.

2. 主要 肺病證과 四象體質病證의 비교·고찰

主要 肺病證을 『東醫壽世保元』原文과 비교하여 各 病證의 虛實을 구분하였다.

1) 喘

(1) 少陰人

가) 腎受熱表熱病

① 鬱狂證 4례

傷寒의 陽明病證에서 津液의 亡失로 인해 발생하는 胃家實病에 대한 내용<sup>13)</sup>에서 喘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太陽病 表證이 아직 罷하지 않았을 때 發汗(麻黃湯), 利小便(猪苓湯) 및 下(承氣湯)의 誤治로 인하여 胃中이 煩燥해져서 喘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sup>14)</sup>.

이 조문에서 喘의 증상이 發하게 된 원인은 太陽病의 誤治로 인한 津液의 亡失이며, 본문에서 표현되는 증상들이 微喘·循衣摸床·惕而不安 같은 허증성 경향이 두드러지므로 虛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鬱狂證 陽明病 胃家實의 治方에 관한 내용인 承氣湯劑의 誤用과 熱性瀉下濟 巴豆의 이용 예<sup>15)</sup>에서 喘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大黃을 主材로 하

는 大承氣湯<sup>16)</sup>은 원래 瀉下의 대표적 방제로 太陽病이 陽明으로 轉屬하여 大便이 秘塞해지고 熱證이 盛한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사실 少陰人의 경우도 太陽病의 경과 중 끈적하게 汗出이 있고 惡寒은 없으며 寸신을 본듯이 헛소리를 하는 등의 증상을 보일 때는 陽明으로 전속한 熱證이므로 大承氣湯을 쓸 수 있으나 그 용도는 다만 이와 같은 陽明의 전속기로 엄격히 제한된다.

東武는 이러한 경과를 가지고 있는 병증을 다루면서 大承氣湯이라는 처방하나를 가지고 오직 그 쓸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 그 때가 되어서 약을 투여하거나 아니면 그 시기를 넘어 熱證의 極盛期가 되면 이 약을 쓰되 脈을 보아 弦한자는 살고 澁한자는 죽는다는 식의 수동적 논리를 전개하는 傷寒의 治法을 결코 美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東武는 表證이 내재하는 太陽病期에 溫補升陽하는 효능의 약물로 腎局의 陽氣를 升擧하는 治法을 제시하고, 陽明轉屬期 또는 陽明熱盛期라 하더라도 巴豆로 便通하면서 八物君子湯<sup>17)</sup>이나 升陽益氣湯<sup>18)</sup>같은 升陽하면서도 脾局의 陽氣를 補益하는 처방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腎局에서 脾局으로 향하는 陽氣의 흐름을 일관되게 유도하는 升陽 治療의 정신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sup>19)</sup>.

이 조문에서도 微喘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循衣摸床·惕而不安등의 虛證性 증상이 나타나며, 大承氣湯을 쓴 후 ‘脈弦者 生 脈澁者 死’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분명한 虛證임을 알 수 있고, 이 때 東武는 大承氣湯 대신 熱性 瀉下劑인 巴豆로 便通하면서 升陽益氣하는 효능의 人蔘, 黃芪, 白芍藥등이 主藥인 八物君子湯, 升陽益氣湯의 처방을 제안하므로 虛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許叔美가 鬱狂證 陽明病 胃家實證에 小承氣湯

13) ‘傷寒 若吐 若下後 不解 不大便 五六日至十餘日 日晡所發潮熱 不惡寒 狂言 如見鬼狀 若劇者 發則 不識人 循衣摸床 惕而不安 微喘直視 脈弦者 生 脈澁者 死.’ (6-19)  
14) 이정찬 譯註. 新 四象醫學論. 木과土, 서울, 2001: 257.  
15) ‘~ 若劇者 發則 不識人 循衣摸床 惕而不安 微喘直視 用之於此則 脈弦者 生 脈澁者 死 ~.’(6-20)

16) 大黃 4錢 厚朴 枳實 芒硝 各2錢  
17) 人蔘 2錢 黃芪 白朮 白芍藥 當歸 川芎 陳皮 炙甘草 各1錢 薑3棗2  
18) 人蔘 桂枝 黃芪 白芍藥 各2錢 白何首烏 官桂 當歸 炙甘草 各1錢  
19) 이정찬 譯註. 앞의 책. 260-261.

Table 1. The Classify of Deficiency and Excess Lung-Diseases in SCM. by Asthma Symptoms

	少陰人		太陰人		少陽人	
	腎受熱 表熱病		胃脘受寒 表寒病		胃受熱 裡熱病	
	鬱狂證	亡陽證	背頰 表病證	胃脘寒證	胸膈熱證	陰虛午熱證
肺虛	4례			1례		
肺實			1례		1례	

20)을 쓴 治驗例<sup>21)</sup>에서喘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許叔美도 역시 이 病證에 대해 張仲景이 말한 ‘脈弦者生 脈澁者死’의 원칙과 大承氣湯의 ‘可用’ 시기를 기다리는 治法을 백안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宋代에도 이미 이러한 논리에 대한 비판이 싹터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脈象의 관찰이라는 굴레와 瀉下治法의 뒷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芒硝를 빼고 厚朴과 枳實의 양을 약간 줄인 小承氣湯을 여전히 쓰고 있으며, 服藥 후 경과의 판단에 있어서도 脈이 弦하게 변화하는 양상을 중시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본 조문의 引用文에서 小承氣湯을 쓴 후 脈이 弦하게 된 것은 病者의 陽氣消耗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熱證의 해소로 몸 상태가 호전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소위 ‘脈弦者生’의 이치는 少陰人의 체내에 남아있는 ‘陽氣의 存在’에 있는 것이고 ‘脈澁者死’의 이치는 ‘陽氣의 고갈’에 있는 것이다<sup>22)</sup>. 조문의 내용에서喘의 증상이喘急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小承氣湯 복용 후 弦脈이 나타날 때 치료되는 것으로 보아 앞서 仲景이 말한 大承氣湯을 쓴 경우와 차이가 없다. 고로 虛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陽明病에 潮熱, 狂言하는 鬱狂之末證에서喘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微喘直視’라고 표현되어 있다<sup>23)</sup>. 이 때의 治法도 巴豆로 便通하면서 人蔘, 黃芪와 같은 升陽하면서도 脾胃의 陽氣를 補益하

는 약물이 主藥인 八物君子湯이나 升陽益氣湯과 같은 처방들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虛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 (2) 少陽人

### 가) 胃受熱裏熱病

#### ① 胸膈熱證 1례

한 少陽人이 寒多熱少의 傷寒으로 인해 發狂 譫語에 이르는 治驗例<sup>24)</sup>에서도喘의 증상이 나타나는데,喘促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본 조문에서 예시되고 있는喘促의 증상은 胸膈熱의 熾盛에 따라 胸膈과 背脊를 감싸면서 陰氣의 結滯가 유발되는 증상으로 처음에는 가벼운 증세였으나, 증상이 2차로 나타났을 때는 胸膈의 熱性病理가 더욱 심각해져서 譫語, 發狂,喘促등의 신랄한 상태가 나타나고 결국 病者는 動風에 이르고 대량의 石膏之劑를 투여하여 겨우 病證이 해소되는 경과를 밝게 된 것을 말한다. 六味地黃湯으로 가벼운 利水와 滋陰清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 때는 그런 정도의 작용으로 熾盛한 胸膈의 熱性病리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임을 알 수 있다<sup>25)</sup>.

즉, 이 조문에서 나타나는喘促證은 胸膈熱의 熾盛이 원인이 된 것으로,喘促이라고 표현된 것

20) 大黃 4錢 厚朴 枳實 各1.5錢

21) ‘一人 病傷寒 大便不利 日晡發潮熱 手循衣縫 兩手撮空 直視喘急 諸醫皆走 此誠惡候 仲景 雖有證而無法 但 脈弦者生 脈澁者死 謾且救之 與小承氣湯一服而 大便利 諸疾漸退 脈且微弦 半月愈.’ (6-21)

22) 이정찬 譯註. 앞의 책. 262-263.

23) ‘陽明病 潮熱 狂言 微喘直視者 鬱狂之末證也.’ (6-35)

24) ‘嘗治 少陽人 傷寒 發狂 譫語證 時則 乙亥年 清明節候也 少陽人 一人 得傷寒 寒多熱少之病 四五日後 午未辰刻 喘促短氣 伊時 經驗未熟 知少陽人應用藥 六味湯 最好之理故 不敢用他藥而祇用六味湯一貼 病人喘促 即時頓定 又數日後 病人 發狂 譫語喘促 又發 又用六味湯一貼則 喘促雖少定而不如前日之頓定矣 病人 發狂連三日 午後喘促又發 又用六味湯 喘促 略不少定 有頃 舌卷動風 口噤不語 於是而 始知六味湯之無能爲也 急煎白虎湯一貼 以竹管 吹入病人鼻中 下咽而 察其動靜則 舌卷口噤之證 不解而病人 腹中微鳴 仍以兩爐煎藥 荏苒灌鼻 數三貼後 病人 腹中大鳴 放氣出焉 ~.’ (9-41)

25) 이정찬 譯註. 앞의 책. 421-422.

Table 2. The Classify of Deficiency and Excess Lung-Diseases in SCM. by Coughing Symptoms

	少陰人				太陰人			
	腎受熱表熱病		胃受寒裡寒病		胃脘受寒表寒病		肝受熱裡熱病	
	鬱狂證	亡陽證	太陰證	少陰證	背頤 表病證	胃脘寒證	肝熱證	陰血耗竭證
肺虛		1례						
肺實							1례	

으로 미루어 보아喘의 증상이 급함을 알 수 있고, 六味地黄湯을 복용하고는 약간 효과가 있었으나 다시再發한 것을 清熱瀉火의 효능이 있는石膏, 知母가 主藥인 白虎湯<sup>26)</sup>을 몇차례 복용하고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보아 實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太陰人

가) 胃脘受寒表寒病

① 背頤 表病 1례

傷寒論의 麻黃湯證에서喘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sup>27)</sup>, 이는 太陰人 表寒病證(背頤表病) 초기 형태의 전형을 시사하는 것<sup>28)</sup>으로 볼 수 있으며 麻黃湯證은 脈浮緊, 無汗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表實證이므로, 여기서는 實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胃脘寒證 1례

平素에 肝熱證과 胃脘寒證을 같이 가지고 있다가 癩病에罹患된 治驗例<sup>29)</sup>에서喘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본 조문에서喘의 증상이 ‘呼吸短喘’이라고 표현되며, 咽隘乾燥하는 肝熱證과 面色蒼

Table 3. The Classify of Excess Lung-Diseases in SCM. by Fullness in the Chest

	少陽人			
	脾受寒表寒病		胃受熱裡熱病	
	少陽 傷風證	亡陰證	胸膈 熱證	陰虛 午熱證
肺實	4례			

白·身冷·泄瀉하는 胃脘寒證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평소 病證이 重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이 癩病을 얻어 汗流滿面·面色帶青·痰涎壅喉·口不能咯 등의 虛證性 증상이 나타나며 險證이 된 것을 처음에 寒厥·重證이나 長感病에 사용하는 寒多熱少湯<sup>30)</sup>을 쓰고, 병이 풀린 후에는 증병으로 허약해진 太陰人의 조리약인 調理肺元湯<sup>31)</sup>으로 40일간을 조리하여 겨우 생명을 구한 것으로 볼 때, 虛證임을 알 수 있다.

(4) 小結

喘의 증상은 少陰人 表病에 肺虛證 4례, 太陰人 表病에 肺虛證·肺實證 各 1례, 少陽人 裏病에 肺實證 1례가 나타난다.

2) 咳

(1) 少陰人

가) 腎受熱表熱病

26) 石膏 5錢 知母 2錢 甘草 7分  
 27) ‘太陽傷寒 頭痛發熱 身疼腰痛 骨節皆痛 惡寒無汗而喘 麻黃湯 主之 註曰 傷寒 頭痛身疼腰痛 以至牽連百骨節俱痛者 此 太陽傷寒 榮血不利故也.’ (12-1)  
 28) 全國 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앞의 책. 283.  
 29) ‘~ 七日 全體面部 髮際以下 至于脣頰 汗流滿面 淋漓洽足而 汗後 面色帶青 有語訥證 八日 九日 語訥 耳聾而 脣汗 還爲顛汗 顛汗 還爲眉稜汗 汗出微粒 乍出乍入而只有額汗 呼吸短喘矣 至于十日 夜 額汗 還入而 語訥耳聾 尤甚 痰涎壅喉 口不能咯 病人 自以手指 探口拭之而出 十一日 呼吸短喘 尤甚 至于十二日 忽然 食粥二碗 斯時 若論其藥則 熊膽散 或者可也 而熊膽 闕材 自念此人 今夜必死矣 當日初昏 呼吸 暫時少定 ~.’ (12-13)

30) 全國 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앞의 책. 421. 薏苡仁 3錢 蘿菔子 2錢 麥門冬 桔梗 黃芩 杏仁 麻黃 各1錢 乾栗 7個  
 31) 全國 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앞의 책. 421. 麥門冬 桔梗 薏苡仁 各2錢 黃芩 麻黃 蘿菔子 各1錢

① 亡陽證 1례

11세 汗多亡陽病 治驗例<sup>32)</sup>에서 乾咳의 증상이 나오는데, 갑작스레 나타나는 頭痛, 發熱, 汗出, 大便秘塞 등의 증상은 腎局에 鬱蓄한 陽氣가 表局의 膀胱으로 흘러 背表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누출되는 것이니 이것은 이미 초기부터 危證에 빠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여기서 人蔘 4錢, 附子 1-2錢이 든 人蔘桂枝附子湯을 쓴 이유는 脾局 陽氣의 상태가 거의 고갈지경에 빠져 급히 補陽助氣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sup>33)</sup>.

汗多亡陽證 자체가 초기부터 위급한 상태에서 발병하는 것이고, 여기 治驗例에서도 黃芪桂枝湯에 白何首烏를 빼고 大補元氣하는 효능을 가진 人蔘 4錢을 추가하여 君藥으로 삼은 뒤에 回陽救逆하는 附子를 가한 처방인 人蔘桂枝附子湯<sup>34)</sup>을 쓴 것으로 보아 虛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太陰人

가) 肝受熱裏熱病

① 肝熱證 1례

太陰人 裏熱證 瘟病에 관한 내용<sup>35)</sup>중에서 咳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東武는 처방으로 黑奴丸을 제안하고 있다. 黑奴丸은 清熱瀉下하는 효능을 지닌 大黃, 黃芩, 芒硝를 主藥으로 삼으므로 여기서는 實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小結

咳 증상은 少陰人 表病에 肺虛證 1례, 太陰人

32) ‘~ 兩日後 其兒 亡陽證又作 不惡寒 發熱汗多而 小便赤澀 大便秘結如前 面色帶青間有乾咳 病勢 此前太甚 其日 卽 得病九日也 時則 巳時未刻也 急用 巴豆一粒 仍煎人蔘桂枝附子湯 用人蔘五錢 附子二錢 連二貼 壓之 至于日晡 大便始通 小便稍多而 色赤則 一也 又用人蔘桂枝附子湯 用人蔘五錢 附子二錢 一貼服矣 至于二更夜 其兒側臥而 頭不能舉 自吐痰一二匙而 乾咳仍止 ~.’ (6-32)

33) 이정찬 譯註. 앞의 책. 272-273.

34) 全國 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앞의 책. 360-361. 人蔘 4錢 桂枝 3錢 白芍藥 黃芪 各2錢 當歸 炙甘草 各1錢 附子炮 各1-2 薑3棗2

35) ‘感四時不正之氣 使人 痰涎壅盛 煩熱 頭疼 身痛 增寒壯熱 項強 睛赤 或 飲食如常 起居依舊 甚至 聲啞 或眼赤口瘡 大小腮腫 喉痺 咳嗽稠粘 噴嚏’ (13-11)

裏病에 肺實證 1례가 나타난다.

3) 胸滿

(1) 少陽人

가) 脾受寒表寒病

① 少陽傷風證 4례

仲景이 말한 少陽病의 증상은 口苦, 咽乾, 目眩, 耳聾, 胸脇滿, 往來寒熱, 嘔 등이다. 傷寒論의 少陽病은 少陽人의 少陽傷風證에 해당하는데, 이 少陽傷風證의 症狀과 治法, 기전, 경과를 설명하는 조문중에<sup>36)</sup> 胸滿의 증상이 나온다.

즉 少陽證은 正氣實·邪氣實하여 正邪抗爭이 極甚한 상태로 口苦·咽乾·目眩·耳聾·往來寒熱·胸滿 등의 實證性 症狀들이 나타나므로, 實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小結

胸滿증상은 少陽人 表病에 肺實證 4례 나타난다.

4) 汗出

(1) 少陰人

가) 腎受熱表熱病

① 鬱狂證 3례

表部の 熱邪가 入裏하면서 內熱이 盛하는 陽明病 胃家實에서 汗出의 증상이 나타나는데<sup>37)</sup>,

36) ‘口苦 耳聾 胸滿者 少陽傷風證也.’(9-5)

‘口苦 咽乾 目眩 耳聾 胸脇滿 或 往來寒熱而嘔 屬少陽 忌吐下 宜小柴胡湯和之.’(9-6)

‘張仲景所論 少陽病 口苦 咽乾 胸脇滿 或 往來寒熱之證 卽 少陽人 腎局陰氣 爲熱邪所陷而 脾局陰氣 爲熱邪所壅 不能下降連接於腎局而 凝聚腎間 膠固因滯之病也 此證 嘔者 外寒 包裡熱而 挾疾上逆也 寒熱往來者 脾局陰氣 欲降未降而 或降故 寒熱 或 往或來也 口苦 咽乾 目眩 耳聾者 陰氣因滯 腎間 欲降未降故 但寒無熱而 至於耳聾也 口苦 咽乾 目眩者 例證也 耳聾者 重證也 胸脇滿者 結胸之漸也 脇滿者 猶輕也 胸滿者 重證也.’(9-8)

‘少陽人 傷寒病 有再痛三痛發汗而愈者 此病 非再三感風寒而再痛發汗三痛發汗也 少陽人 頭痛腦強 寒熱往來 耳聾 胸滿 尤甚之病 元來如此 表邪深結 至於三痛然後 方解也 無論初痛再痛三痛 用 荊防敗毒散 或 荊防導赤散 荊防瀉白散 每日二貼式 至病解而用之 病解後 又用十餘貼 如此則 自無後病而完健.’(9-11)

37) ‘傷寒 轉屬陽明 其人 漉然微汗出也.’ (6-18)

조문에 나타나는 汗出자체가 微汗出이고, 여기서의 汗出은 太陽表病이 풀리는 경과로써의 땀이 아니고 少陰人の 병리상 볼 때 陽氣가 누출되면서 생리기능체계가 극도로 불균형해진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sup>38)</sup>이므로 여기서의 汗出은 虛證으로 볼 수 있다.

秦漢時代에는 大便秘燥한 증상에 大黃의 治法만 있고, 巴豆의 治法이 없어서 仲景도 大黃이나 大承氣湯을 써서 치료한 후 陽明病 胃家實이 발생하였는데<sup>39)</sup>, 이때 微汗出의 증상이 나타난다.

東武는 이에 반해 巴豆로 陽明胃家實의 변비증을 풀어낸 후 人蓼이 君藥이고, 升陽하는 八物君子湯으로 힘을 돋우어 병을 완전히 제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正氣와 邪氣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少陰人의 특성을 과감히 이용하여 腎局陽氣와 脾局陽氣를 거스리지 않으며, 결국은 正氣의 힘을 더욱 높여주는 정공법이라 할 수 있다<sup>40)</sup>. 이로 미루어 보아 虛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成無己도 또한 陽明形證에 瀉下劑를 쓴 후 譫語, 手足澀然微汗出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주의깊게 치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sup>41)</sup>. 이렇듯 신중론을 펴게 되는 것은 外證이 陽明形證으로 나타나더라도 補氣, 補血이나 溫裏의 요법을 써야만 하는 경우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sup>42)</sup>. 成無己도 陽明形證에 瀉下劑를 쓰는 것에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少陰人 鬱狂證에 대한 인식을 했으며, 東武가 제시하는 升陽益氣의 방법을 써야함을 인식했던 것이다. 고로, 여기에서의 汗出증상도 虛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亡陽證 7례

陽明病에서 自汗出하고 小便이 잘 나가며 大便이 굳는 脾約證 2례에서 汗出 증상이 나타나는데<sup>43)</sup>, 脾約證의 원인이 津液內竭이고, 東武는 陽明病 脾約證에 升陽益氣하여 補益을 하는 방법을 제시하므로 虛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少陰人 11세 汗多亡陽病 治驗例<sup>44)</sup>에서 汗出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앞서 咳와 관련된 증상에서 고찰했듯이 虛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러 조문에 걸쳐 亡陽證을 정의하고 있는데<sup>45)</sup>, 亡陽證은 초증부터 표기허박에 의한 正氣가 邪氣에 밀리는 상황이라서 危證나 險證이 될 가능성이 높다. 升陽益氣라는 鬱狂證과 같은 처방을 제시하지만 亡陽證은 固表止汗이라는 表部의 寒邪를 무조건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虛薄한 正氣를 보호하며, 升陽益氣하여 補益을 하는 방법을 취하게 됨이 鬱狂證과 다르고 陽明脾約으로 발전하면 中氣가 끊어져서 위급한 상황

38) 이정찬 譯註. 앞의 책. 256-257.

39) ‘論曰 秦漢時 醫方治法 大便秘燥者 有大黃治法 無巴豆治法 故 張仲景 亦用大黃大承氣湯 治 少陰人 太陽病轉屬陽明 其人 澀然微汗出 胃中燥煩實 不大便 五六日至十餘日 日晡發潮熱 不惡寒 狂言 如見鬼狀之時而 用之則 神效 ~ 若用八物君子湯 升陽益氣湯 與巴豆丹則 雖劇者 亦無脈弦者生 脈濇者死之理也 ~.’ (6-20)

40) 全國 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앞의 책. 212.

41) ‘潮熱 屬陽明 必於日晡時發者 乃爲潮熱也 陽明之爲病 胃家實也 胃實則 譫語 手足澀然微汗出者 此大便已硬也 譫語有潮熱 承氣湯下之 熱不潮者 勿服.’ (6-24)

42) 이정찬 譯註. 앞의 책. 265.

43) ‘傷寒 陽明病 自汗出 小便數則 津液內竭 大便必難 其脾爲約 麻仁丸主之.’ (6-28)

‘陽明病 自汗出 小便自利者 此 爲津液內竭 大便雖硬 不可攻之 宜用蜜導法 通之.’ (6-29)

44) ‘嘗治 少陰人 十一歲兒 汗多亡陽病 此兒 勞心焦思 素證 有時以泄瀉爲憂而 每飯時 汗流滿面矣 忽一日 頭痛 發熱 汗自出 大便秘燥 以此兒 素證 泄瀉爲憂故 頭痛 身熱 便秘 汗出之熱證 以其反於泄瀉 寒證而曾不關心 尋常治之 以黃芪 桂枝 白芍藥 等屬 發表矣 至于四五日 頭痛·發熱不愈 六日平明 察其證候則 大便燥結 已四五日 小便赤澁二三匙而 一晝夜間 小便度數 不過二三次 不惡寒而發熱 汗出度數則 一晝夜間二三四次不均而 人中則或有時有汗 或有時無汗 汗流滿面滿體 其證可惡 ~.’ (6-32)

45) ‘~ 太陽病 發熱惡寒 汗自出者 亡陽之初證也 陽明病 不惡寒 反惡熱 汗自出者 亡陽之中證也 陽明病 發熱汗多者 亡陽之末證也 蓋 鬱狂證 都是身熱 自汗不出也 亡陽證 都是身熱 自汗出也 ~.’ (6-35)

‘~ 陽證 自汗不出而有頭痛身熱者 太陽陽明病 鬱狂證也 自汗出而有頭痛身熱者 太陽陽明病 亡陽證也 ~.’ (6-36)

‘~ 亡陽病證 非但 觀於汗也 必觀於小便多少也 若小便清利而 自汗出則 脾約病也 此險證也 小便赤澁而 自汗出則 陽明病 發熱汗多也 此危證也 然少陽人 裡熱證 太陰人 表熱證 亦有汗多而 小便赤澁者 宜察之 不可誤藥.’ (6-37)

‘胃家實病 其始焉 汗不出 不惡寒 但惡熱而 其病垂危則 澀然 微汗出 潮熱也 澀然微汗出 潮熱者 表寒振發之力 永竭故也 胃竭之候也 脾約病 其始焉 汗自出 不惡寒而 其病垂危則 發熱汗多而 惡寒也 發熱汗多而 惡寒者 裡熱撐支之勢 已窮故也 脾絕之候也.’ (6-38)

Table 4. The Classify of Deficiency Lung-Diseases in SCM. by Sweating Symptoms

	少陰人		太陰人		少陽人	
	腎受熱 表熱病		胃脘受寒 表寒病		胃受熱 裡熱病	
	鬱狂證	亡陽證	背傾 表病證	胃脘 寒證	胸膈 熱證	陰虛 午熱證
肺虛	3례	7례		1례	1례	

이 되는 것<sup>46)</sup>으로 볼 때 虛證임을 알 수 있다.

(2) 少陽人

가) 胃受熱裏熱病

① 胸膈熱證 1례

少陽人이 胃熱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大便을三日정도 못 본 후에 汗出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sup>47)</sup>, 조문에서 나타나듯이 便閉가 지속되고 熾盛한 胃局熱氣의 표징인 汗出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陰寒之氣의 세력이 극히 약화된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sup>48)</sup>, 大腸局의 陰寒之氣가 清越之力的 부족으로 清陽으로 상승하지 못해서 나는 땀이므로 虛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太陰人

가) 胃脘受寒表寒病

① 胃脘寒證 1례

平素에 肝熱證과 胃脘寒證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瘧病에 이환된 治驗例에서 汗出의 증상이 나타나는데<sup>49)</sup>, 앞서 喘의 증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虛證에 속함을 알 수 있다.

Table 5. The Classify of Excess Lung-Diseases in SCM. by Cold-Heat Symptoms

	少陽人			
	脾受寒表寒病		胃受熱裡熱病	
	少陽 傷風證	亡陰證	胸膈 熱證	陰虛 午熱證
肺實	4례			

(4) 小結

汗出증상은 少陰人 表病에 肺虛證 10례, 太陰人 表病에 肺虛證 1례, 少陽人 裏病에 肺虛證 1례 나타난다.

5) 寒熱往來

(1) 少陽人

가) 脾受寒表寒病

① 少陽傷風證 4례

少陽傷風證 4례에서 寒熱往來의 증상이 나타나는데<sup>50)</sup>, 胸滿증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少陽傷風證은 實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少陽人 脾受寒表寒病에서 肺實證 4례 나타난다.

(2) 小結

寒熱往來 증상은 少陽人 表病에 肺實證 4례 나타난다.

6) 煩躁

(1) 少陰人

50) '口苦 咽乾 目眩 耳聾 胸膈滿 或 往來寒熱 而嘔 屬少陽 忌吐下 宜小柴胡湯和之.' (9-6)  
 '張仲景所論 少陽病 口苦 咽乾 胸膈滿 或 往來寒熱之證 卽 少陽人 腎局陰氣 爲熱邪所陷而 脾局陰氣 爲熱邪所壅 不能下降連接於腎局而 凝聚腎間 膠固滯滯之病也 此證 嘔者 外寒包裡熱而 挾疾上逆也 寒熱往來者 脾局陰氣 欲降未降而 或降故 寒熱 或往或來也.' (9-8)  
 '少陽人 傷寒病 有再痛三痛發汗而愈者 此病 非再三感風寒而再痛發汗三痛發汗也 少陽人 頭痛腦強 寒熱往來 耳聾 胸滿 ~.' (9-11)  
 '太陽病不解 轉入少陽者 脇下硬滿 乾嘔不能食 往來寒熱者 尚未吐下 脈沈緊者 與小柴胡湯 若已吐下發汗 譫語 柴胡證 證罷 此爲壞病 依壞法治之.' (9-39)

46) 全國 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앞의 책. 214.  
 47) '少陽人 胃受熱則 大便燥也 脾受寒則 泄瀉也 故亡陰證 泄瀉 二三日而 大便秘 一晝夜則 清陰將亡而 危境也 胃熱證 大便 三晝夜不通而 汗出則 清陽將渴而 危境也.' (10-9)  
 48) 이정찬 譯註. 앞의 책. 441.  
 49) '~ 六日後 始用藥 七日 全體面部 髮際以下 至于 脣頰 汗流滿面 淋漓洽足而 汗後 面色帶青有語訥證 八日 九日 語訥 耳聾而 腎汗 還爲 額汗 額汗 還爲 眉稜汗 汗出微粒 乍出乍入而 只有 額汗 呼吸短喘矣 ~.' (12-13)



가) 腎受熱表熱病

① 亡陽證 1례

李梴이 말하는 陽明病 脾約證의 治法에 관한 조문<sup>51)</sup>에서 煩躁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汗出로 인해서 陽氣가 소진하면서 汗漏不止·身必冷·痺寒·四肢拘急의 虛證性 증상이 나타나며, 처방으로 溫補하는 효능을 지닌 桂枝와 附子가 主藥인 桂枝附子湯<sup>52)</sup>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虛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 胃受寒裏寒病

① 太陰證 3례

太陰證 痞滿에 관한 내용<sup>53)</sup>에서 煩躁 증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서의 煩躁 증상은 下焦 大腸局의 陰寒之氣가 점차 강화되면서 熱氣의 鬱結이 兼發하는 양상으로 볼 수 있으며<sup>54)</sup>, 처방으로는 甘草가 君藥인 甘草瀉心湯<sup>55)</sup>을 쓰고 있으므로 虛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傷寒病을 얻어서 黃疸(陰黃)이 發한 증상중에 煩躁 증상이 나타나고<sup>56)</sup>, 우선 茵陳橘皮湯<sup>57)</sup>을 쓰나 脈微弱 또는 脈沈細遲無力·身冷같은 虛證性 증상이 나타나므로, 茵陳을 君藥으로 하고 溫中·回陽救逆하는 효능을 가진 附子, 乾薑등을 추가한 茵陳四逆湯<sup>58)</sup>, 茵陳附子湯<sup>59)</sup>같은 처방을 활용하므로, 虛證으로 분류 할 수 있다.

陰寒의 속성을 가지는 黃疸 不治에 관한 조문에서 煩躁 증상이 또 나타나는데<sup>60)</sup>, 黃疸의 병증

이 10일이 지나면서부터는 병증의 경과가 회복의 국면으로 접어들어 病者의 外樣이 점차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喘滿煩渴, 面黑’하다면 이는 順證이 아니고 惡性的인 병리변화로 진행되는 경과임을 알 수 있고, 조문에서 ‘喘滿煩渴, 面黑’의 상태는 藏厥證이나 陰盛隔陽證과 같은 少陰證의 악성 변화에서 볼 수 있는 表裏俱病의 惡候라고 볼 수 있어서 매우 險重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로 보아 虛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61)</sup>.

② 少陰證 5례

少陰病의 증상과 치법이 제시된 조문에서 煩躁 증상이 나타나는데<sup>62)</sup>, 이 조문에서 ‘但欲寐’라는 陽虛의 특징이 제시되고 있으며 비록 ‘心煩’이나 ‘渴’등의 熱性특징이 있더라도 ‘但欲寐’라든지 ‘自利’등의 증상이 함께 있으면 少陰病證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小便色白’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sup>63)</sup>. 또한 少陰人의 裏病 少陰證은 正氣가 邪氣의 세력에 의해 정복 당하여 大腸寒氣가 胃中溫氣를 이기고 오히려 그 세력을 확장시키며 下利清水, 陰盛隔陽, 藏厥의 상태가 나타나는 위중한 病證이 되고<sup>64)</sup>, 溫中·回陽救逆하는 효능을 지닌 乾薑, 附子가 主藥인 四逆湯<sup>65)</sup>을 쓰는 것으로 보아 虛證으로 구분할 수 있다.

藏厥證의 心的 유인과 치법에서 心煩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sup>66)</sup>, 少陰人의 병증경과에서 少陰病은 초기에 병을 얻은 당시로부터 이미 그 양상이 위중한 것으로 조속히 조치를 취하여 병의 회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藏厥證은 少陰病이 진행되어 나타나는 병증이 다. 少陰病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초래될 수 있는

51) ‘汗多不止 謂之亡陽 如心痞胸煩 面青膚潤者 難治 色黃手足溫者 可治 凡 汗漏不止 眞陽脫亡 故謂之亡陽 其身必冷 多成痺寒 四肢拘急 桂枝附子湯主之.’ (6-31)  
52) 附子炮, 桂枝 各3錢 白芍藥 2錢 甘草炙 1錢 薑 3片 棗 2枚  
53) ‘下後下利 日數十行 穀不化 腹雷鳴 心下痞硬 乾嘔 心煩 此 乃結熱 乃胃中虛 客氣上逆故也 甘草瀉心湯主之.’ (7-7)  
54) 이정찬 譯註. 앞의 책. 299.  
55) 甘草 2錢, 乾薑, 黃芩 各1.5錢 半夏製 人參 各1錢 棗3枚  
56) ‘陰黃 煩躁 喘嘔不渴 宜用 茵陳橘皮湯 一人 傷寒發黃 脈微弱 身冷 次第用藥 至茵陳四逆湯 大效 一人 傷寒發黃 脈沈細遲無力 次第用藥 至茵陳附子湯 大效.’ (7-61)  
57) 茵陳 10錢 陳皮 白朮 半夏 生薑 各1錢  
58) 茵陳 10錢 附子炮 乾薑炮 甘草炙 各1錢  
59) 茵陳四逆湯 去乾薑

60) ‘黃疸十日以上 入腹 喘滿煩渴 面黑者 死.’ (7-65)  
61) 이정찬 譯註. 앞의 책. 350-351.  
62) ‘傷寒 欲吐不吐 心煩 但欲寐 五六日 自利而渴者 屬少陰 小便色白 宜四逆湯.’ (7-19)  
63) 이정찬 譯註. 앞의 책. 313.  
64) 全國 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앞의 책. 234.  
65) 甘草炙 6錢 乾薑炮 5錢 生附子 1枚  
66) ‘論曰 少陰人 喜好不定而 計窮力屈則 心煩躁也 少陰病 傷寒 欲吐不吐 心煩 但欲寐者 此 非計窮力屈者之病乎 蓋 喜好者 所慾也.’ (7-39)

것이 藏厥證이라면, 少陰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藏厥證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少陰病을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가 본 조문에서 강조하는 바이고, 초기로부터 이미 위중한 속성을 가지는 少陰病과 같은 병증은 藥의 힘만으로는 그 상태를 돌려놓기가 어려운 것이니 반드시 性情의 偏急을 억제 할 수 있는 修養의 요법을 병행해야만 할 것이라는 내용도 중요한 의미를 갖음을 알 수 있다<sup>67)</sup>. 즉, 藏厥證은 少陰證으로 분류할 수 있고, ‘但欲寐’ 등의 虛證性 증상들이 나타나므로 虛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朱肱이 말하는 陰盛隔陽證<sup>68)</sup>에서 身冷·脈沈細而疾·不飲水 등의 증상과 함께 煩躁증상이 나타난다. 이 조문에서 강조되는 현상은 ‘不飲水’로 이는 병리의 속성상 陰의인 근본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즉 겉으로는 煩躁가 심한 熱像을 나타내지만 內的으로는 陰寒의 병리가 작용하고 있어서 반사적 기능으로 물을 거부하고 있는 양상이라는 것이다. 이 때 內面的 陰寒의 병리는 말할 것도 없이 大腸局의 陰寒之氣이며 煩躁證은 陽氣의 鬱結이 심화된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sup>69)</sup>. 고로, 虛證으로 분류 할 수 있다.

成無己가 말하는 陰盛隔陽證<sup>70)</sup>에서 煩躁증상이 나타나는데, 少陰人에서 煩躁는 오히려 中上焦에 深重한 陽虛의 병리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下焦의 鬱熱이 작용하여 躁證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니 이것을 두고 바로 ‘但躁不煩’이라고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고, ‘先躁後煩’의 경우도 이와 흡사한 것으로 ‘煩’이라는 근거에서 ‘躁’가 발하는 것이 아니라 ‘躁’에 의해서 ‘煩’이 초래되는 것이라면, 내적으로는 亡陽의 상태에 처해 있으면서 겉으로만 熱性的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sup>71)</sup>, 虛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李梴이 말하는 陰盛隔陽證<sup>72)</sup>에서 煩躁증상이 나타나는데, 여기 조문에서 ‘欲投井中’하거나 갈증나는 등의 陽虛의 병리 증상과 ‘身冷, 脣青面黑, 飲水復吐, 大便自利黑水’ 등의 陰寒의 병리 증상, ‘六脈沈細而疾, 無脈’ 등 虛證性 증상이 같이 나타나므로<sup>73)</sup>, 虛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 (2) 少陽人

### 가) 脾受寒表寒病

#### ① 少陽傷風證 2례

大靑龍湯證에서 煩躁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sup>74)</sup>, 大靑龍湯證은 상한론에서 太陽表實證, 즉 麻黃湯證의 變證으로 體表의 寒邪가 不解하면서 內熱이 鬱滯하여 煩躁하게 되는 病證으로, 大靑龍湯<sup>75)</sup>은 麻黃으로 表寒을 풀면서도 石膏로 內에 鬱滯한 煩熱을 淸解하여야만 하는 內外로 상반된 두 가지 목표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처방이므로<sup>76)</sup>, 여기서는 實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少陽人 脾受寒表寒病을 정의하고 있는 조문에서 煩躁 증상이 나타나는데<sup>77)</sup>, 여기서의 煩躁는 胸中에 熱이 鬱結하여 일어나는 증상으로 少陽人의 表病證 병리체계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가 된다<sup>78)</sup>. 또한 惡寒·發熱·脈浮緊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實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② 結胸證 2례

龔信이 말한 結胸證에서 煩躁 증상이 나타나

67) 이정찬 譯註. 앞의 책. 330-331.

68) ‘病人 身冷 脈沈細而疾 煩躁而 不飲水者 陰盛隔陽也 若 飲水者 非此證也 厥陰病 渴欲飲水者 小小與之 愈.’ (7-40)

69) 이정찬 譯註. 앞의 책. 331.

70) ‘煩謂心中鬱煩也 躁謂氣外熱躁也 但煩不躁 及先煩後躁者 皆可治 但躁不煩 及先躁後煩者 皆不可治 先躁後煩 謂怫怫然 更作躁悶 此 陰盛隔陽也 雖大躁 欲於泥水中臥 但水不得入口 是也 此 氣欲絕而爭 譬如燈將滅而暴明.’ (7-41)

71) 이정찬 譯註. 앞의 책. 332-333.

72) ‘傷寒 陰盛隔陽 其證 身冷反躁 欲投井中 脣青面黑 渴欲飲水復吐 大便自利黑水 六脈沈細而疾 或無脈 陰盛隔陽 大虛證也 宜薤白散 又曰 厥逆煩躁者 不治.’ (7-42)

73) 이정찬 譯註. 앞의 책. 333.

74) ‘太陽病 脈浮緊 發熱 惡寒 身痛 不汗出而 煩躁者 大靑龍湯主之.’ (9-1)

75) 麻黃 3錢 桂枝 2錢 杏仁 1.5錢 石膏 4錢 甘草 1錢 生薑 3片 大棗 2枚

76) 이정찬 譯註. 앞의 책. 378.

77) ‘論曰 發熱 惡寒 脈浮緊 身痛 不汗出而 煩躁者 卽少陽人 脾受寒 表寒病也 此證 不當用 大靑龍湯 當用 荊防敗毒散.’ (9-2)

78) 이정찬 譯註. 앞의 책. 379.

Table 6. The Classify of Deficiency and Excess Lung-Diseases in SCM. by Dysphoria

	少陰人				太陰人		少陽人			
	腎受熱裏熱病		胃受寒裏寒病		肝受熱裏熱病		脾受寒表寒病		胃受熱裏熱病	
	鬱狂證	亡陽證	太陰證	少陰證	肝熱證	陰血耗竭證	少陽傷風證	結胸證	胸膈熱證	消渴證
肺虛		1례	3례	5례						
肺實					1례		2례	2례	2례	2례

고 있는데<sup>79)</sup>, 心下硬痛·手不可近·燥渴譫語·大便實·脈沈實有力·按之則痛등의 實證性 증상들을 호소하고 처방은 大陷胸湯<sup>80)</sup>, 小陷胸湯<sup>81)</sup>을 쓰기 때문에 實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少陽人 結胸證의 治法에 관한 내용<sup>82)</sup>에서 煩躁 증상이 나타나는데, 조문에서 結胸性 병증의 輕重을 말하되 ‘膈內拒痛 手不可近 燥渴譫語’하는 大結胸湯을 最尤甚證이라고 표현하며, 급히 甘遂를 쓰고 淸熱瀉火하는 효능을 지닌 石膏, 生地黃이 君藥인 地黃白虎湯<sup>83)</sup>을 쓴 것으로 보아 實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 胃受熱裏熱病

① 胸膈熱證 2례

三陽合病證의 증상에서 煩躁의 증상이 나타나는데<sup>84)</sup>, 이 조문에서의 ‘煩渴’은 胸膈의 火熱이 上炎하는 양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증상이고<sup>85)</sup>, 처방으로 淸熱瀉火하는 효능을 지닌 石膏를 主藥으로 한 白虎湯<sup>86)</sup>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實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79) ‘心下硬痛 手不可近 燥渴譫語 大便實 脈沈實有力 爲大結胸 大陷胸湯下之 反加煩躁者 死 小結胸 正在心下 按之則痛 宜小陷胸湯.’ (9-16)  
 80) 大黃 3錢 芒硝 2錢 甘遂末 0.5分  
 81) 半夏製 5錢 黃連 2.5錢 瓜蒌 大者 1/4  
 82) ‘論曰 右張仲景所論三證 皆結胸病而 膈內拒痛 手不可近 燥渴譫語者 結胸之最尤甚證也 ~ 煩渴譫語者 尤極險證也 急用 甘遂 仍煎 地黃白虎湯 三四貼 以壓之 ~.’ (9-17)  
 83) 石膏 5~10錢, 生地黃 4錢 知母 2錢 防風 獨活 1錢  
 84) ‘三陽合病 頭痛面垢 譫語遺尿 中外俱熱 自汗煩渴 腹痛身重 白虎湯主之.’ 10-5)  
 85) 이정찬 譯註. 앞의 책. 435.  
 86) 石膏 5錢 知母 2錢 甘草 7分 粳米 半合

Table 7. The Classify of Excess Lung-Diseases in SCM. by Sneezing

	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		肝受熱裏熱病	
	背飢表病證	胃脘寒證	肝熱證	陰血耗竭證
肺實			1례	

朱肱이 말한 陽厥證의 증상에서 煩躁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sup>87)</sup>, 陰厥은 寒性的 病理를 기반으로 하고, 陽厥은 熱性的 病理를 기반으로 한다<sup>88)</sup>. 또한 나타나는 증상이 脈이 伏하나 按之滑하며, 揚手擲足·大便秘·小便赤등의 實證性 증상이 나타나며 白虎湯을 쓰기 때문에 實證으로 분류 할 수 있다.

② 消渴病證 2례

王好古는 渴病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중 上消證을 消渴이라 표현하였으며 胸中에 煩躁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sup>89)</sup>. 이때 煩躁證은 胃局 淸陽이 頭面四肢部로 상승하지 못하여 나타나 는 것으로 煩躁證과 동시에 熱氣上騰, 引飲常多,

87) ‘陽厥者 初得病 必身熱頭痛 外有陽證 至四五日 方發厥 厥至半日 却身熱 蓋 熱氣深 方能發厥 若微厥 却發熱者 熱甚故也 其脈 雖伏 按之滑者 爲裏熱 或飲水 或揚手擲足 或煩躁 不得眠 大便秘 小便赤 外證 多昏慣 用白虎湯.’ (10-7)  
 88) 이정찬 譯註. 앞의 책. 438.  
 89) ‘渴病有三 曰消渴 曰消中 曰消腎 熱氣上騰 胸中煩躁 舌赤唇紅 此渴 引飲常多 小便數而少 病屬上焦 謂之消渴 ~.’ (10-13)

Table 8. The Classify of Deficiency and Excess Lung-Diseases in SCM. by Chief Lung-Disorder Symptoms

	少陰人		太陰人		少陽人	
	腎受熱 表熱病	胃受寒 裡寒病	胃脘受寒 表寒病	肝受熱 裡熱病	脾受寒 表寒病	胃受熱 裡熱病
肺虛	16례	8례	2례			1례
肺實			1례	3례	12례	5례

小便數而少등의 熱證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東武는 涼膈散火湯<sup>90)</sup>을 治方으로 사용하였는데 처방중의 生地黃, 石膏, 知母, 梔子, 薄荷, 連翹 등은 본초학적으로도 淸熱瀉火하는 약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이 경우 煩躁證은 實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朱震亨은 消渴證을 上消·中消·下消로 분류하였으며 下消證의 증상 가운데 煩躁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sup>91)</sup>. 이때 煩躁과 함께 引飲, 小便如膏하는 熱象이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에 東武가 治方으로 제시한 熟地黃苦參湯<sup>92)</sup>은 六味地黃湯에서 山藥, 牡丹皮를 빼고 淸熱瀉火하는 知母, 黃柏, 苦參을 加味한 처방으로 투약의 목표가 단지 陰虛證을 補하는데만 있지 않고 知母, 黃柏, 苦參의 淸熱瀉火하는 약재를 통해 邪熱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므로 實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太陰人

가) 肝受熱裏熱病

① 肝熱證 1례

太陰人 裏熱證 癩病에서 煩躁의 증상이 나타나는데<sup>93)</sup>, 앞서 咳의 증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0) 生地黃 忍冬藤 連翹 各2錢 山梔子 薄荷 知母 石膏 防風 荊芥 各1錢  
 91) '上消者 舌上赤裂 大渴引飲 白虎湯主之 中消者 善食而瘦 自汗 大便硬 小便數 黃連猪肚丸主之 下消者 煩躁引飲 小便如膏 腿膝枯細 六味地黃湯主之.' (10-14)  
 92) 熟地黃 4錢 山茱萸 2錢 白茯苓 澤瀉 各1.5錢 知母 黃柏 苦參 各1錢  
 93) '感四時不正之氣 使人 痰涎壅盛 煩熱 頭疼 身痛 增寒壯熱 項強 睛疼 或飲食如常 起居依舊 甚至聲啞 或眼赤口瘡 大小腮腫 喉痺 咳嗽稠粘 噴嚏.' (13-11)

實證으로 분류 할 수 있다.

(5) 小結

煩躁 증상은 少陰人 表病에 肺虛證 1례, 裏病에 肺虛證 8례, 太陰人 裏病에 肺實證 1례, 少陽人 表病에 肺實證 4례, 裏病 肺實證 4례 나타난다.

7) 嘔

(1) 太陰人

가) 肝受熱裏熱病

① 肝熱證 1례

太陰人 裏熱證 癩病에서 嘔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는데<sup>94)</sup>, 앞서 咳와 관련된 증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實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小結

嘔증상은 太陰人 裏病에서 肺實證 1례가 나타난다.

8) 綜合

主要 肺病證의 虛實 구분을 東醫壽世保元 篇名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肺虛證은 少陰人 表病에서 16례, 裏病은 8례 나타난다. 太陰人에서는 表病 2례 나타나며, 少陽人에서는 裏病에 1례 나타난다.

肺實證은 少陽人 表病에서 12례, 裏病은 5례 나타난다. 太陰人 表病에 1례, 裏病 3례 나타난다. 少陰人 全病證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94) '感四時不正之氣 使人 痰涎壅盛 煩熱 頭疼 身痛 增寒壯熱 項強 睛疼 或飲食如常 起居依舊 甚至聲啞 或眼赤口瘡 大小腮腫 喉痺 咳嗽稠粘 噴嚏.' (13-11)

## IV. 考 察

『靈樞·經脈篇』과 『東醫寶鑑·肺門』을 종합하여 喘, 咳, 胸滿, 汗出, 寒熱往來, 煩躁, 噎 등의 肺의 주요 증상을 선별하였다. 선별 기준은 『靈樞·經脈編』과 『東醫寶鑑·肺門』에 공통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나는 病證으로 채택했다. 단, 噎의 증상은 『東醫寶鑑』에서만 언급되었지만 肺와 관련된 증상에서 쉽게 나타나고, 『東醫壽世保元』에 언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택했다.

喘의 증상은 少陰人 表病에서 肺虛證 4례가 나타나고, 太陰人 表病에서 肺虛證·肺實證 各 1례, 少陽人 裏病에서 肺實證 1례가 나타난다.

이로 미루어 보아 少陰人 表病에서 喘의 증상은 주로 肺虛證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咳의 증상은 少陰人 表病에서 肺虛證 1례, 太陰人 裏病에서 肺實證 1례 나타난다.

胸滿 증상은 少陽人 表病에 肺實證 4례 나타나고, 『東醫壽世保元』의 다른 부분에서 언급되지 않으므로, 少陽人 表病에서 胸滿 증상은 대부분 肺實證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汗出 증상은 少陰人 表病에서 肺虛證이 10례 나타나므로 少陽人 表病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고, 만일 少陰人 表病者의 汗出 증상은 肺虛證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汗出 증상은 太陰人 表病, 少陽人 裏病에서 각각 肺虛證 1례씩 나타나고 있다.

寒熱往來 증상은 少陽人 表病에서 肺實證 4례 나타난다. 寒熱往來 증상은 少陽人 表病에서 대부분 肺實證의 양상을 보이며, 少陽人 表病에서만 나타나므로 앞서 胸滿증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少陽人 表病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煩躁 증상은 少陰人 表病에서 肺虛證 1례 나타나고, 少陰人 裏病에서 肺虛證 8례 나타나므로, 少陰人 裏病과 煩躁 증상은 긴밀한 관련이 있음

을 추정해 볼 수 있다. 太陰人 裏病에서는 肺實證 1례 나타난다. 또한 煩躁 증상은 少陽人 病證에서 肺實證으로 두루 나타나는데, 少陽人 表病·裏病 각각 4례씩 나타나므로, 少陽人에게 나타나는 煩躁 증상은 肺實證의 가능성이 높다.

噎증상은 太陰人 裏病에서 肺實證 1례 나타난다.

肺虛證은 少陰人 表病에서 16례, 裏病에서 8례 나타나고 있다. 즉, 少陰人 全病證에 고루 나타나고 있어 肺虛證과 少陰人 病證과의 긴밀한 상관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太陰人에서는 表病 2례 나타나며, 少陽人에서는 裏病 1례 나타난다. 이로 미루어 보아 少陰人의 肺病證은 주로 肺虛證의 양상을 보인다는 가설을 세워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少陰人 表病에서 16례나 나타나므로, 肺虛證은 특히 少陰人 表病과 더욱 더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少陰人에 비해 太陰人과 少陽人이 肺虛證과 관련이 적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肺實證은 少陽人 表病 12례, 裏病 5례가 나타나므로, 少陽人 全病證과의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少陽傷風證에서 10례가 나타나므로, 肺實證은 특히 少陽傷風證과 관련이 깊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太陰人에서는 表病 1례, 裏病 3례 나타나며, 少陰人의 全病證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肺實證은 少陽人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少陽人 表病과 더욱 더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少陽人에 비해 太陰人과 少陰人이 관련이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肺虛證과 肺實證 모두 太陰人 陰血耗竭證과 太陽人의 病證에서는 한 예도 나타나지 않아 肺의 病證과 太陰人 陰血耗竭證, 太陽人과의 관련이 희박함을 추론할 수 있다.

본 논문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선행논문 및 자료가 부족하여 근거 제시가 힘든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가 肺이외의 다른 臟腑까지 확대된다면 기존 臟腑辨證과 四象體質病證의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하고, 나아가 각 病證에 대하여 臟腑虛實을 이용한 침구치료에도 응용해 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예를 들어 胸滿이나 寒熱往來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少陽人이라면 肺實證으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침구치료를 적용해 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V. 結 論

1. 『靈樞·經脈篇』과 『東醫寶鑑·肺門』을 종합하여 선별한 肺의 주요 증상은 喘, 咳, 胸滿, 汗出, 寒熱往來, 煩躁, 噎이다.

2. 喘의 증상은 少陰人 表病에 肺虛證 4례, 太陰人 表病에 肺虛證·肺實證 各 1례, 少陽人 裏病에 肺實證 1례가 나타난다.

3. 咳 증상은 少陰人 表病에 肺虛證 1례, 太陰人 裏病에 肺實證 1례가 나타난다.

4. 胸滿증상은 少陽人 表病에 肺實證 4례 나타난다.

5. 汗出증상은 少陰人 表病에 肺虛證 10례, 太陰人 表病에 肺虛證 1례, 少陽人 裏病에 肺虛證 1례 나타난다.

6. 寒熱往來 증상은 少陽人 表病에 肺實證 4례 나타난다.

7. 煩躁증상은 少陰人 表病에 肺虛證 1례, 裏病에 肺虛證 8례, 太陰人 裏病에 肺實證 1례, 少陽人 表病에 肺實證 4례, 裏病 肺實證 4례 나타난다.

8. 噎증상은 太陰人 裏病에서 肺實證 1례가 나타난다.

## VI. 감사의 글

이 논문은 한국 한의학 연구원 2006년도 기관 고유 사업 - 체질 임상 DB 구축 및 체질 진단 객관화 연구 - 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 VII. 參考文獻

1. 全國 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改訂增補 四象醫學. 集文堂, 서울, 2004.
2. 黃帝內經 靈樞. 醫聖堂, 서울, 2002.
3. 東醫寶鑑國譯委員會 譯. 對譯 東醫寶鑑. 法仁文化社, 서울, 1999.
4. 이정찬 譯註. 新 四象醫學論. 木과土, 서울, 2001.